大學間 協議體의 機能과 役割

金 鍾 喆
(서울大 敎育學科)

1. 머리말

大學은 교육의 기관인 동시에 학문의 전당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대학이 自尊과 孤高의 자세를 자랑하며 학문의 專門化에 따른 知的 孤立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스스로 초연한 자세를 지키려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학문의 세계, 진리의 세계란 그 탐구자들이 저마다 외로운 城主로서 담을 쌓아 올리고 성벽을 지키려 하는 自主的 노력을 통해서 건설된 것이기 때문이다. 大學이 학문과 학문 사이에, 다양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서로 個性을 자랑하고 自主를 존중하며 孤高한 자세와 自足의 세계를 지향하게 되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大學社會가 흔히 몬로主義로 특징지워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社會도 변화하고 社會의 변화와 더불어 大學도 점차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大學의 변화 가운데 大學敎育의 大衆化 추세와 같이 모두에게 뚜렷한 것도 있으나 비교적 눈에 뜨이지는 않지만 大學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大學間 協議의 촉진 추세를 들 수 있다.

大學間 協議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왜 필요한 것일까? 大學間 協議體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大學間 協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반대로 그것을 가로막는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일련의 물음에 대하여 간단히 이 글에서 대답해 보고자 한다.

韓國大學敎育協議會가 그 역사적인 발족을 한 지도 5년이 되었다. 때마침 교육의 민주화·자율화가 추진되는 역사적 轉換期에 서서 大學間 協議體의 正體를 재확인해 보고자 하는 正體性 認識의 次元에서 이 글은 쓰여진 것이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은 사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한 기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전환기에 서서 새로운 전진을 기약하는 데 있어서는 正體性의 재확인이 절실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2. 大學間 協議의 必要性

大學間 協議가 필요하게 된 것은 대학 내외의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대학이 그에게 부여된 연구, 교육, 봉사 등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대학이 일종의 아우타르키를 형성하고 自給自足體制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환상이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서로 門戶를 열어 협력해 나가는 것이 自他를 위하여 이롭다고 느끼게 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오늘날 大學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대학의 조직과 구성도 異質化·多樣化하였다. 옛날은 학문의 영역도 비교적 단순하였고 高級人力에 대한 사회의 수요도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專門化의 촉진으로 大學에서 연구되어야 할 학문의 영역은 分化되고 專門化되었으며 대학에서 양성 공급하여야 할 高級人力의 수요는 그 종류와 질의 정도에 있어서 한없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온 學生들도 그 구성에 있어서 훨씬 다양화되고 이질화되었으며, 大學은 그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면에서나 그 구성원과 고객들의 요구면에서나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社會의 變化라고 줄여서 말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보다 깊이 분석한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간의 사상과 이념면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都市化·産業化·近代化·國際化 등으로 불리워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뭏든 어떠한 사회 변화에 기인된 것이건 大學은 주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변화 촉진자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변모시키고 있으며 그 자체의 프로그램도 異質化되고 多樣化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의 대학이 한 국가, 한 사회의 모든 수요를 다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며 어느 한도 안에서 그 자체의 서비스 영역을 한정시키고 特性化시킬 필요가 불가피하게 생기게 된다. 대학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연구, 교육, 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간에 補完과 協力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옛날에도 그러한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것을 보다 절실히 느끼게 할 사회적 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대학은 自主와 孤立을 유지하고 自給自足의 체제를 가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연구, 교육의 운영 등에 있어서도 우리는 社會的 紐帶性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고나 할까? 대학이 저마다의 自尊과 自主를 유지하면서도 역할의 분담과 상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 필요성을 大學發展의 본질과 보다 큰 社會的 名分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大學間 協議의 필요성은 大學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면의 役割 分擔과 相互補完의 필요성을 전제로 할 때 인정될 수 있으며 대국적 견지에서 개별 대학이 이러한 점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그와 같은 필요성의 인식이 한 나라, 한 지역 단위의 共同體 意識에 토대를 두는 것이건 또는 국가를 넘어선 普遍的 學問共同體의 연대 의식에 기인하건 또는 개별 대학간의 利害關係에서 연유되는 것이건간에 그것은 대학이라고 하는 지극히 自主的이며 個性이 뚜렷한 조직 사이에 장벽을 헐고 協力의 손을 내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토대 위에서만 大學間 協力과 協議는 가능해진다. 그것은 몬로주의의 장벽을 헐고 고립과 경쟁에 길들여진 대학간에 協力과 協同으로 共同의 善을 추구하게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大學間 協議의 필요성은 대학간에 균형 발전을 위한 촉매 작용을 한다는 뜻에서도 필요하다. 협동, 협력은 본시 自給하고 自足하는 상황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우나 지역내의 대학간에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학 발전상 어떠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싹틀 때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다른 대학을 의식하고 나와 너를 합친 보다 큰 사회로서의 전체 속에서 너와 나의 위치를 생각하며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생각할 때 상호간에 협의하고 협동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같은 균형 발전은 비교적 동질적 대학 사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서로 역할과 기능을 달리 하는 다른 종류의 대학 사이에서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大學間 協同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심지어는 4년제 대학과 초급대학 사이에서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거니와 그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미한 정도의 大學間 協同이나마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대학 사이에서 보다

잘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아뭏든 大學間에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상호간에 협의와 협동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

大學間 협의는 대학이 점차 개방화되고 심지어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강력해질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대학은 본시 保守性과 進步性의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自己中心的 閉鎖性의 一面과 더불어 合理性 존중의 開放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이러한 兩面性은 대학과 사회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긴 안목에서 대학으로 하여금 合理的 改革主義의 힘을 기르게 하고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門戶開放의 길을 걷게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그 스스로 고고한 自尊의 정신 자세를 지키면서도 眞理와 理性을 향한 開放과 普遍의 길을 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여기에 연유하였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오늘날은 社會 전체가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는지라 대학은 국제화·개방화의 길을 걷는 데 별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을 필요도 적으며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대학이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하며 그것을 촉진해 나가고자 할 때 그것은 국내 대학간에서 협의와 협동을 촉진하는 것과 국제간에서 대학간의 협동을 촉진하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협동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동일의 논리와 동일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일관된 원리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동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국제간에서 먼저 시작하느냐, 국내에서 먼저 발족하느냐는 대학 협동의 사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논리와 같은 마음가짐의 적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건에 따른 전술적 적용의 차이를 나타낼 뿐 실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국제화·개방화는 곧 大學間 協同의 증대를 의미한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이 대학 내부에서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건 또는 대학 외부의 압력과 영향에 기인하건간에 대학이 국제화되고 개방화된다는 것은 곧 대학이 그 閉鎖主義의 장벽을 헐고 다른 대학, 다른 조직체와의 협력과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大學間에서 協議의 필요성은 행·재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도 느껴지고 있다. 서로 비슷한 목적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처지에서 같이 협의하여 때로는 공동 보조를 취하고 또 서로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을 극소화시키며 재정면에서도 낭비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문교부가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시달하고 각 대학이 이를 싫건 좋건 따라야 했던 때와는 달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가지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할 때 각 대학이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협의하여 공동 보조를 취할 때는 취하고 또 서로 논의한 끝에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와 대화는 매우 소중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아뭏든 대학의 自律性이 고조될수록 대학간의 협의는 대학의 행정 및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 된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한 가지 첨가할 수 있는 점은 교통·통신 혁명과 電子情報化時代의 도래로 대학간 협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사실이라 하겠다. 사회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천과 더불어 기술의 혁신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간 협의와 협동의 필요성이 제아무리 강조되고 사실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技術的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서 그것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교통·통신 기술의 향상과 전자 정보 시스템의 개발로 웬만한 기술적 애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즉 대학간의 협의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여건이 손쉽게 마련된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행·재정 측면에서의 協議와 協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협의와 협동을 해야겠다는 뜻만 서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은 손쉽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대학간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의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大學間 協議體의 役割과 機能

대학이 저마다의 建學 理念을 지키고 秀越性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自律性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협의와 협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와 같은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직체를 공식으로 마련한 것이 곧 大學間 協議體이다. 1962년에 발족한 美國州立大學協會(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나 1982년에 발족된 韓國大學敎育協議會가 잘 말해 주듯이 그것은 대학간의 자율적인 협의 기구로서 대학 발전에 있어서 일련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간 협의체는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반 시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며 자율적 규제 방안도 발전시킨다. 대학간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여기에서 역할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으로 그 當爲性에 역점을 둔 개념이고, 기능은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하며 現實性에 치중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1]

① 大學政策에 관한 협의를 거쳐 정책 당국에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고 대학교육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 정책이 개별 대학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대학의 협의체가 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협의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文敎部의 태도가 협의체의 정책 참여의 범위를 제한하는 꼴이 되었으나 앞으로 대학의 自律化가 추진되면 대학의 협의체가 보다 활발한 정책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대학은 본시 고도의 學問의 自由를 인정받고 있는 조직체로 대학 정책이 문교 행정 당국과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지시 일변도로 시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總·學長 會議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의사가 문교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랜 과제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대학 정책에의 참여가 미흡하였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으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협의와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인가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요구가 있었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성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저장, 보급 등의 기능은 대학간 협의체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역할이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이제 교육 발전의 핵심 영역의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국가 발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시되는 부문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점차 전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는 정보와 지식 및 자료를 대량 보유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적절히 보급하는 일은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개별 대학으로서는 대학교육의 秀越性을 추구하고 대학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노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 내부의 조직이나 기관만의 힘으로서는 어느 한계를 느끼게 된 셈이다. 여기에서 대학간 협의체가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개입하여 다양한 정보 자료를 가맹 대학과 대학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수집, 정리, 보급 등의 기능이 앞에서 말한 정책의 협의와 건의 및 참여를 위한 기능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은 또한 자명한 논리이다. 정보의 흐름 없이 정책에 대한 대화와 협의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정책의 연구·개발 기능 또한 정책의 협의와 정책 건의 등의 기능에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연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과학적 문제 해결의 방식을 대학교육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

1) 엄밀히 따지면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고 役割 期待에 대하여 논한 다음 그 役割 遂行 내지 현재의 기능과 기대되는 역할과의 괴리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 사회의 교육 문제는 그 내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즉흥적인 대응을 불허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늘날 점차 그 복잡성과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는 대학교육의 여러 문제는 과학적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얻어진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 대안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문제 역시 개별 대학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대학간 협의체를 통하여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과 정보를 한편으로는 공동의 정책 협의와 정책 대안의 자료로 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대학의 대학 발전과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일은 중요한 당면 과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물론 대학교육연구소 같은 기구가 제대로 조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의 대학간 협의체가 이와 같은 소임과 역할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대학간 협의체에 대한 역할 기대면에서 그러한 연구 개발의 기능이 중시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논리이다.

④ 대학간 협의체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또 하나의 역할은 自律的 評價의 기능이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통로를 거쳐 다양하게, 그러나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문교부나 정부 당국은 그 나름대로의 처지와 예컨대 관료들의 손으로 또는 大學調査委員會 같은 것의 조직을 통해서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에 대한 통제와 조사의 한 방편으로 삼아 왔다. 대학은 그 자체의 연구 기관이나 교수들을 동원하여 스스로의 업적을 평가하고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과 자아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사회 일반은 그 나름대로의 인상과 관찰을 토대로 개별 대학에 대한 일종의 평가를 시도하고 대학의 위치를 가늠하게 되었으며 대학의 社會的 名聲과 聲價를 정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밖에도 비슷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評價의 노력은 대학간 협의체의 결성과는 거의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간 협의체에 의한 평가는 그것이 自律的인 것이면서도 보다 조직적이며 보다 체계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판이하다. 여기에서 상세히 논의할 여유가 없으나 自律的·體系的·實用的 評價로의 전환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평가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정책의 협의와 정책 대안의 건의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절차이다. 이 기능과 역할의 효과적인 수행 없이 대학간 협의 기구의 건실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점은 한국의 경우 평가의 活用面에서 아직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논의하지 않겠다.

⑤ 대학간 협의체의 또 하나의 역할은 대학과 대학인의 權益을 옹호하고 그것을 더욱 伸張하는 대변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대학과 대학인을 위한 권익 옹호는 종래에 지극히 미약한 형편이었다. 교직단체는 초·중등 교원의 권익 옹호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으며 대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기능 분화와 대학과 대학인의 역할 증대를 계기로 대학과 대학인의 권익을 그 나름대로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어떠한 조직체의 출현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도 당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없지 않으며 오늘의 대학간 협의체가 얼마나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뭏든 현단계는 그와 같은 기능의 중요성이 보다 깊이 인식되고 보편화되어야 할 시동의 단계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 기능의 수행 역시 정보의 교환, 정책의 협의, 연구와 평가 등 여타의 기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수의 처우 문제, 특히 국·사립간의 봉급 격차 문제나 교수와 직원들의 재단 법인과의 알력과 긴장 같은 문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대학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책 협의의 대상으로서 보다 정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이 방면의 노력도 가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⑥ 대학간 협의체에게 부과된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대학간 협동의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촉매 작용이라 하겠다. 대학간 협동의 필요성은 대학간 협의 기구의 존재 이유와도 상통되는 것이며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학간 협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은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크기만 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도된 경험을 토대로 하고 또 논리적인 준거에 입각하여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된 바도 있다. 그것은 첫째로 학점 교환이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공동 개발 등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면에서의 협동, 둘째로 도서관이나 컴퓨터 등 시설의 공동 활용을 포함하여 시설 설비의 설치와 운영면에서의 협동, 세째로 교수 교류, 협동 연구 등을 포함하는 교수간의 협동, 네째로 학생 선발 업무나 대학 행사의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하는 행정 관리면에서의 협동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地域間 協同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도된 바 있다.[2] 또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학간 협동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 국가에 있어서 대학간 협동이 지극히 당연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학간에는 아직도 굳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으며 대학간에는 협동보다도 경쟁이 더 첨예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학간 협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앞으로도 대학간 협의체는 이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대학간 협의체는 이 조직체에 가맹한 대학 상호간에 있어서 대학인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수련과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협의체가 직접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개별 대학이나 대학의 연합으로 하여금 대학인의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대학인의 자질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본다면 이 점의 중요성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이제까지 한국의 대학간 협의체는 총·학장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등의 집회를 자주 개최하였고 초임 교수 요원의 연수, 사무 직원의 연수 등에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면의 노력 역시 보다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과 쇄신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4. 大學間 協議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건

위에서 대학간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논하였다. 이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기본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학간 협의체의 현실을 볼 때 그와 같은 기본 조건의 정립을 저해하고 따라서 대학간 협의체의 운영을 부실하게 또는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 기본 조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에서의 現實的 制約 條件 내지 阻害 要因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전통적 보수성과 폐쇄성의 문제이다. 이미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대학은 보수성과 진보성, 특수성과 보편성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그 전통적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閉鎖된 울타리 속에서 孤高한 자세를 유지하는 면이 강했다. 보다 최근에 開放을 지향하는 노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 韓國大學敎育協議會, 大學間 協力을 위한 韓·美 大學總長 세미나論叢, 제 1 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4.

인사면에서나 재정 관리면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외부 인사의 교내 출입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한을 가하여야 한 현실 여건 속에서 대학을 운영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처지이다. 대학간에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긍하고 있으면서도 현실 경험을 통해서 체질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간 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내적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학 협의체의 운영을 제약하는 기본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거의 모든 대학의 역사가 일천하고 단기간에 대학의 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진 대학의 운영 모형을 그대로 따서 대학의 自給自足性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의 프로그램면에서나 조직면에서 저 나름대로의 獨自性을 찾아보기 힘들며 많은 대학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중복하고 있다. 따라서 市場을 향한 경쟁 체제가 위주이지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相互補完과 協同을 위주로 하는 대학 체제의 기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74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大學 特性化 施策이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自生的으로 이루어진 大學間 協同을 포함하여 최근에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地域別 大學間 協同의 추진은 이와 같은 경쟁 체제의 지양과 협동 보완 체제의 창출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아직도 허다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 文敎部의 統制主義的 태도가 문제이다. 그것은 오랜 中央集權的 統制의 전통으로 경직화되어 있으며 최근 교육의 民主化·自律化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를 철저히 청산하겠다는 公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의 自律性 확보와 문교부에 의한 통제를 代替할 만한 새로운 체제와 질서의 미확립으로 과도기적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自律과 방종을 혼동하거나 자율을 남용하여 무질서를 초래하게 하는 일부 사려없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自律化의 방향과 속도에 대하여도 혼선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태는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自律化의 정착으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뭏든 이제까지는 문교부의 통제주의 대학 행정 방식이 대학간 협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이 명백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敎育風土를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 특성이 문제이다. 대학 상호간에 협동을 조장할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一流, 二流, 三流 등 대학을 계층화시켜 놓고 일류 대학의 '좋은 학과'를 향한 선호가 크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집중 현상과 과도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그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갖가지 노력도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社會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경쟁의 메카니즘과 더불어 대학간에 있어서의 협동도 이를 지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간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은 현실적으로 뛰어 넘기 어려운 장애물에 봉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앞선다. 아마도 이들과 기타 여러 장애 요인을 차차 제거 완화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自律과 協同을 향한 여러 조건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데 성공하는 정도에 따라서 대학간 협의체의 운영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일련의 도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한국 대학의 안팎에서 하나 하나 갖추어지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 자체가 문교부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보다 自律的으로 대학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해 나가며 보다 의연한 自主的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일부 대학의 경우 과도적 혼란을 빨리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대학이 知性과 理性을 토대로 하여 대학 스스로의 이념과 전진의 좌표를 재확립함은 물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건 또는 전체 대학의 공동 발전을 염원하는 견지에서건 대학간에 협의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門戶의 개방과 장벽의 제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개방과 대학간의 협력은 밀접히 관

련되어 있으며 唯我獨尊의 태도를 견지하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모든 대학이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일부 先進大學의 경우 대학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社會的 責任을 인식하게 될 때 대학간 협의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세째, 구체적인 협의와 협력의 프로그램이나 의제(agenda)의 편성이 적절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7가지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며 우리의 대학 사회에서 그 適合性과 適時性을 인정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의제를 선택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대학간 협의 기구의 내부에서 창출할 수도 있고 가맹 대학 중에서 제기할 수도 있으며 문교부나 외부 기관에서 제기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절히 조직하여 구체적인 협의의 의제로 또는 연구의 과제로 적절히 제시하는 것은 대학간 협의체의 전문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네째, 人力, 資源, 時間 등 여러 측면에서 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며 협의, 연구, 정책 건의 등 모든 시행 과정에서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의 指導性이 있어야 한다. 대학간 협의 기구의 성패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바람직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행정 지도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대학 발전의 성패가 대학간 협의체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중요성에 걸맞는 기구, 인력, 자원 등의 측면에서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대학간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괴리를 좁히는 길은 오직 부단한 평가로 자체의 개선을 시도해 나가는 것뿐이다. 모든 조직체의 운영에 있어서는 체제의 投入, 過程, 産出 要因 사이에서 적절한 還流(feedback) 장치가 마련되고 체제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자체의 개혁과 진로 수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 논리는 대학간 협의체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5. 맺는 말

대학의 자치가 하나의 이상으로서가 아니고 보다 구체적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교육의 자율화·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대학이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 自律性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時代精神이며 社會의 요구인 것이 분명할진대 그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自律化가 보다 진지하게 추진되면서 대학간 협의체의 중요성도 더욱 인식될 것이며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그 역사적 출범을 한 지 5개 星霜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이 시점에서 대학간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大學人들이 다함께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